

2021년 6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출진흥과 과 장 김재형(044-201-2171), 사무관 김기성(2176) / 제공일: 6월 15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딸기의 변신!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듭나다!

-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으로 하반기 수출확대 기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농식품부는 코로나로 인한 악재 속에서도 스타품목 딸기의 수출단계별 15개 실행과제 추진과 싱가포르 딸기 전용기 운항 등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24.7% 늘어난 49백만불 수출실적 달성(5월 누계 기준)

* 딸기 수출(5월 누계) : ('20년) 3.7천톤, 39.1백만불 → ('21년) 3.8(2.1%↑), 48.7 (24.7%↑)

○ 또한, '21년 수출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 20% 높은 65백만불로 정하고 고품질 우량 원료 보급, 우수 재배기술 교육 및 고급 포장재 개발 등 고급화 전략을 통해 해외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수출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딸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 동기(1~5월 기준) 대비 24.7% 증가한 49백만불을 수출 하였으며, 주요 수출국인 홍콩·싱가폴·태국·베트남 등에서 상위권 점유율*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.

* 주요 수출국 점유율(% , 20년 물량 기준) : (홍콩) 미국 33.3 > 한국 32.9, (싱가폴) 한국 41.7 > 미국 29.0, (태국) 호주 43.0 > 한국 30.0, (베트남) 한국 92.6 > 중국 7.4

- 이러한 실적 성과의 뒷면에는 지난해부터 생산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15개 실행과제를 구체화하여 이행하는 한편, 항공사(대한항공)와 업무협약을 통해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운항*한 것도 수출실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.

* 수출전용기 운항 : '20.12월~'21.4월(5개월)동안 주 4회씩 총 88회 운항하여 싱가포르 딸기 수출의 91%(싱가폴 수출 물량 1,050.6톤중 전용기로 958.7톤)를 수송

- 농식품부는 '21년도 딸기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20% 늘어난 65백만불을 계획하고 있다. 금년에는 특히 프리미엄 딸기 생산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주요 수출국의 고급매장, 백화점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우선 생산단계부터 우량원묘 보급과 증식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, 기형과율을 낮추기 위한 실증재배를 완료하고(5월) 전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재배기술 매뉴얼을 제작·보급할 계획이다.

- 기온 상승으로 딸기 품질이 떨어지는 3월 이후에 수확 기간을 연장과 수출 딸기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통합조직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차열막을 공급하고 선도유지에 효과적인 CO₂ , ClO₂ 복합처리를 보급하였다.

- 또한 농식품부는 프리미엄 시장공략을 위해 수출국 선호도 상위 품종(매향·금실·알타킹)을 중심으로 딸기 시범 수출단지를 구성*하고 크기·당도·숙도 등의 품위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맞는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매월 실시하고 있다.

* 시범 수출단지 : 5개 농단 53개 농가 28ha(매향 6, 금실 16, 알타킹 6)

- 더불어 난좌용기(기존 2단 → 1단) 및 내부용기 필름지 개발, 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을 통해 프리미엄 딸기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한편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무진동 냉장탑차를 활용하고 공항주변 냉장창고도 임대·활용할 계획이다.
- 생산·유통과 더불어 농식품부는 주요 딸기 수출국별·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도 구상하고 있다.
 - 홍콩의 경우 한국산 딸기는 고급매장부터 중저가형, 재래시장까지 폭넓은 소비층이 다양한 반면,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딸기의 맛과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, 싱가포르 등 타국산(미국·호주 등)에 비해 약 10% 고가이나 인기가 많으며 온·오프라인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.
-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“딸기는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3% 미만으로 앞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”이라고 밝히며, “농식품부에서는 앞으로도 딸기가 스타품목으로서 수출 1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